

## 제 11강 비폭력 무저항: 톨스토이

### ◆1교시 : 톨스토이 1

#### ▲비폭력 무저항의 바른 개념 1

톨스토이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아나키즘 역사에서 중요시하지 않았던 것들, 의미가 없었던 것들을 아나키즘으로 끌어 들였어요. 톨스토이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톨스토이가 교육에 대해 많이 강조를 했어요.



아나키스트들은 자신의 믿음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선전과 교육을 두 가지를 많이 사용했는데, 톨스토이는 교육에 대한 믿음이 컸는데, 자신의 주변에 농민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나키즘에 입각한 교육을 얘기했죠. Libertarianism에 기반한 교육이라고 얘기하죠. 절대자유주의, 제약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교육이론 가운데, 섬머힐 Summerhill 을 만들어서 교육을 한 것도 톨스토이의 사상을 받은거라 하고, 간디도 톨스토이의 절대자유주의의 교육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비폭력주의도 영향을 받았고 톨스토이의 경우 아나키즘에서 비폭력주의를 말한 최초의 사람이죠.

톨스토이 말고 아나키스트들은 1920년까지도 비폭력을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죠. 톨스토이가 말한 비폭력도 약간 다른 의미일 수 있다. 비폭력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비폭력, 무저항을 같이 생각해요.

비폭력은 저항을 하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는 종교적 의미로 왼쪽 뺨맞으며 다른쪽도 내줘라, 나를 때린 사람에게 보복을 한다거나는 폭력이다라는 의미에서 비폭력을 무저항과 동일시를 시키는 거죠.

종교적 측면뿐아니라 톨스토이, 간디, 마틴루터 킹, 소로우의 사상을 이해한 측면도 있죠. 무저항으로요. 또 하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있겠죠. 저항을 할 때 어떻게 하든 폭력을 써서는 안된다는 비폭력을 말하는 거죠.

톨스토이의 폭력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무저항과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는 톨스토이의 폭력은 국가, 자본, 정부였죠. 비폭력은 동시에 무정부, 비국가, 비자본, 이런 것과 등치시킬 수 있다고 봐야하죠.

개인적 측면에서 너는 비폭력주의자니까 너는 나를 때리면 안돼라고 이해하는 것은 톨스토이의 비폭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 ▲비폭력 무저항의 바른 개념 2

비폭력에 기반한 사회운동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너는 비폭력주의자지, 그러면서 경찰들이 방패를 들고 와서 패려고 하면 맞고 있다거나, 그냥 무너질거나, 그런 질문이 많이 있구요. 종교적 의미에서 누가 널 때리면 너는 다른쪽도 내줄거야라고 물어보죠.

양심에 대한 병역거부자들이 많은데, 정치적인 이유죠.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정치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한국사회가 던졌던 물음이 그런거죠.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오는데 너는 가만히 있을거냐는 질문을 하고 병역거부자들도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뺨을 내밀겠다, 무저항을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질문자체가 국가주의, 폭력이라는 것을 인간의 기본적 요소로 받아들이는 상태로 질문하기 때문에 그런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대답할 수 없죠. 정치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죠.

한국에서는 비폭력에 관한 사고수준이 낮다는 거죠. 톨스토이의 비폭력을 이해할 때, 기독교, 그리스도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많았죠. 예수가 선전한 것처럼,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면 이쪽을 맞으면 저쪽을 내줘라.

그것은 잘못이해한 일면적 이해이다. 톨스토이의 비폭력 아나키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나키즘의 역사에서 비폭력, 평화주의의 신념을 처음으로 융화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윤리적, 개인적 차원뿐아니라 제도적 폭력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아나키즘과 톨스토이의 사상은 모순이 없었다고 보는거죠.

톨스토이가 아나키스트였나 그것을 받아들였나인가 생각할 때, 자신은 나는 아나키스트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19세기 말의 러시아에서 아나키스트는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려는 경향을 의미했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모든 폭력을 배격한 거죠. 개인적, 제도적, 구조적 폭력을 반대했죠.

개인적 차원에서 폭력, 비폭력을 말한다면 톨스토이의 구조적 차원의 폭력은 힘들지 않을까.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 국가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죠. 구조적 측면에 대한 질문과 넘어서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한 개인에게 짐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죠.

## ▲톨스토이의 삶

톨스토이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나, 많은 아나키스트들을 만나고 있는데, 가네코의 경우 신채호, 엠마 골드만, 오스기 사카에의 경우, 나름대로의 사회적 조건과 개인적 경험이 배경이 되어서 아나키즘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것이 보이죠.

톨스토이의 경우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어떠한 영향들이 있었나를 살펴보거나 말년에 아나키스트가 될 수밖에 없었나를 보면 인식론적인 단절을 겪게 되죠. 후에 사상이 변한다거

나 하는 모습, 전 후를 어떻게 볼거냐는 사람들에 있어서 재미있는 주제이죠.

신채호 경우 인식론적인 단절을 통해 사상의 변화, 1920년대 이후 조선혁명선언 이후의 완전한 무정부주의자가 된 모습과 전의 민족주의자로 살았던 점이 공통점이 있지만, 개인적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노력들, 사회적 환경 속에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려는 적극적 모습 때문에 개인의 사상이 발전되어 간 거죠.

톨스토이의 경우도 비슷해요. 신채호의 경우 민족주의자에서 ана키스트로 변모되는 과정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있다고도 하는데, 톨스토이의 경우 오랜 기간 위대한 소설가로 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제일 많죠.

20년이 넘는 제도권 교육을 받으면서 톨스토이가 ана키스트였다는 말은 한 번도 못들었죠. 처음에 ана키즘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비폭력주의를 하고 ана키즘에 끼친 영향들, 톨스토이가 살았던 시대에 권위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 톨스토이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를 보며 놀라기도 했고 감동도 받았죠.

천재적 소설가, 위대한 소설을 꼽으라면, 1, 2, 3순위로 전쟁과 평화, Анна 카레니나를 꼽는데, 위대한 인류가 배출한 위대한 문학가였지만, 40세가 넘어가면서 본질주의적이고 급진적인 성향으로 바뀌는데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톨스토이 문학을 한 사람도 많은데,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ана키스트가 된 후 발표한 소설 중에 뛰어난 것이 있는데, ана키스트에 친근한 문학평론들은 톨스토이의 소설을 평가한 글들을 보면 ана키스트 혹은 기독교에 기반한 급진적 사상, 크리스찬 ана키즘, 이라고 하는데, ана키스트들로 전향하기 전에 발표한 소설을 보면 ана키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시절의 고민이 녹아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전쟁과 평화, Анна카레리나에서 ана키스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평론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측면들을 이야기해서 톨스토이에 관한 풍부한 이해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ана키즘에 관한 것이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복원시켜야 될 것이 많죠.

아나키즘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사람의 작품이 사회와 만나면서 어떤 영향들을 주고 받았는가의 측면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던 부분들을 복원시킨다면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 ▲톨스토이의 개인적 품성과 ана키즘

톨스토이의 경우 불후의 명작을 남겼지만 중년이후에는 그리스도교 개혁가로 전향, 개종을 했다고 하는데, 1877년에 본격적으로 ана키즘에 기반한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고 보게 되는데, 1877이전에 톨스토이가 왜 ана키즘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는가, 개인적인 삶의 궤적을 살펴볼 수 있죠.

일단 귀족출신이면서 자기의 감성이 주변에서 바라봤던 러시아 민중의 삶에 큰 애착이 있었죠. 당시 러시아 귀족이라면 영지라는 곳에서 살고, 넓은 토지가 있고, 많은 하인들이 있는데, 당연 권위적인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죠.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데도 불구하고 톨스토이는 천성적으로 귀족으로서, 권위를 행사하는 체질이 아니었던 것 같다. 주변의 말을 들어보면, 톨스토이가 60세 때 새로운 비서가 들어오는데, 그 전의 비서는 반정부활동으로 추방당하고, 체르트코프라는 사람인데, 톨스토이 곁에서 조언도 해주고, 매니저 같은 사람이죠.

톨스토이가 새로운 비서를 데리고 오는데, 열렬한 톨스토이주의자죠. 톨스토이의 사상을 자신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죠. 처음 영지에 갔을때 톨스토이가 보여줬던 탈권위적인 모습, 자네 목이 마른가, 내가 갖다 주겠네, 나이도 40세나 어린데도, 자기가 물을 갖다 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톨스토이의 생활, 품성이 그렇다는 거죠. 귀족답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었죠.

## ◆2교시 : 톨스토이 2

### ▲톨스토이에 영향을 끼친 사건

톨스토이의 행실을 많이 보였던게, 동시대 귀족들에게 미움을 샀대요. 톨스토이 주의자들은 평민들이었죠. 전 생애를 걸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농촌에 기반한 삶이에요. 아나키스트가 되면서 소설 ‘바보 이반’의 경우, 뚜렷하게 드러나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нина’, ‘참회록’ 등등 많은데,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바보 이반’의 경우 읽어본 몇 개 안되는 톨스토이의 작품 중 하나인데 큰 감명을 받았죠. 첫째 아들은 군인, 당시 러시아 제국, 유럽 제국에 식민지화하려는 것을 상징하죠. 둘째는 부르조아를 상징하죠. 엄청나게 돈이 많은 장사꾼, 셋째는 농사꾼이죠.

교훈적인 이야기인데, 문학 평론가들이 아나키스트가 된 이후의 소설이 예술적 완성도가 떨어졌다는 점에서 비판을 하고 아쉬워하는데, 왜 사회운동에 더 관심을 가졌을까 개탄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나키즘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후의 작품도 완성도 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예술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그렇다고 할 수 있고, 아나키즘측면에서 관심 갖고 살펴보고 하는데, 톨스토이가 농민들의 삶에 관심,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땅을 일구면서 사는 것이 정직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한다고 주장하는데, 톨스토이가 국가폭력,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구조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폭력에 주목했죠.

톨스토이가 젊은 시절, 프랑스에 놀러갔는데, 길로틴, 단두대 1860년 즈음, 20대 때,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모습을 목격하죠. 처형당한 이유는 몰랐는데, 프랑스에서 그 모습을 목격했는데, 톨스토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국가의 폭력이 그것처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다. 그것을 지우지 못했다. 아나키즘에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 이것이고, 또 하나는 무절제한 생활을 해요. 결혼하기 전 일기를 신부에게 보여주는데, 청소년기, 유아기, 아동기, 이런 시절에 관련된 소설들을 쓰는데, 소설의 형태로 나오는데, 자기가 겪었던 것이 반영되었죠.

나중에 톨스토이는 유년기, 청소년기, 등등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인 이전의 3부작 소설을 발표하는데, 위대한 소설가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소설의 목록에서 빼고 싶은, 부끄러운 내용들도 담고 있다고, ‘참회록’에서 하죠.

방탕하게 20대 때 생활을 하고, 성매매도 많이 하고, 아내한테 고백한 내용, 일기를 아내에게 보게 하고, 당신과 결혼하면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하는데, 14살 때 처음 동정을 잃었다느니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생활 후 염증을 느끼죠.

탈출구로 러시아 귀족들이 했던, 군인이 되어 전쟁에 나가는 것, 지금도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거였죠. 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이죠. 러시아의 코카서스 지방의 크림전쟁, 땅이 비옥하죠. 카자흐스탄이 그쪽이고, 흑토라고 하는, 카자흐스탄은 따로 가꾸지 않아도 씨만 뿌려도 잘 자란다고 하죠.

유럽에서도 카자흐스탄에 코카서스 지방, 코자크인들이라고 하죠. 주로 농민들이죠. 밀이나 옥수수를 짓던 사람들인데, 젊은 시절 형과 함께 그쪽으로 가서 근무하고 농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보게 되죠. 감명을 받아요. 톨스토이는 도덕적인 삶을 강조했던 사람인데, 코자크인들이 정직하게 살고 있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죠. 또 하나의 영향이었죠.

크림전쟁에 장교로 출전해서, 이후 발표하는 소설의 소재가 되는데, 어떤 마을의 포위작전의 지휘관으로 참여하면서, 국가간의 폭력이 다가온거죠. 군인이 되어 귀족의 의무를 하기 위해 코카서스 지방으로 갔을 때는 폭력을 보게 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 ▲톨스토이의 개인적 아나키즘

실제 전쟁 경험 후에는 전쟁은 사람이 할 것이 아니다. 개인의 폭력은 국가의 폭력에 비하면 껌도 안된다고 보게 된거죠. 평화주의라고 부르는, 톨스토이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게 만드는 배경이 되죠. 채식을 실천한 것도 자신이 본 살상을 최소화한 거죠. 이러한 경험들을 톨스토이의 편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죠.

세바스토폴의 포위전에 참가해서 ‘세바스토폴 이야기’라는 소설로 냈죠. 톨스토이가 국가의 폭력을 끔찍하게 느끼면서 전쟁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느끼는데, 영웅 중심의 역사소설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병사들이 얼마나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톨스토이에게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데, 지휘관들의 과장, 전투에서 승리하면, 전쟁의 장수의 영광을 가져가죠.

거복선을 만든 것은 목수들이 만들었는데, 이순신이 만들었다는 것과 같은 방식이죠. 톨스토이 시절에도 강했죠. 러시아의 전쟁사 보면 나폴레옹과의 싸움, 전쟁과 평화에서도 500명이 넘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데, 개별인물들, 민중들이 의미를 부여받는 모습들이죠.

지휘관 중심이 아닌 일반 병사들이 진정한 영웅이다. 톨스토이의 아나키즘 생각에 뿌리가 되었죠. 개인주의라고 말을 할 경우, 의미가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로 이름없는 구체적인 이름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톨스토이는 개인적 아나키즘으로 볼 수 있다.

철학적 주체로서 모든 행위중심에 개인을 놓는다는 점에서 슈티러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과는 다르다. 러시아 아나키즘 전통이 바쿠닌에서 시작된다고 할 때 톨스토이, 바쿠닌, 크로포트킨이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인데 공통점이 모두 귀족출신이었다는 점이죠.

바쿠닌은 현 질서의 파괴를 중시했다면 크로포트킨이나 톨스토이는 대안적 사회모델을 더 중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죠. 크로포트킨은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의 중심에 두었다면, 즉 마을주의 아나키즘이라면 톨스토이는 농촌 공동체를 중시하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개별적 사람들이 의미있는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라고 부를 수 있죠.

이런 측면도 톨스토이의 새로운 발견으로 볼 수 있고, 비폭력에 기반한 평화사상, 아나키즘사상, 기독교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 가지가 차이가 없었죠. 아나키즘이라 부르든 기독교라고 부르든, 종교적 측면에서는요.

톨스토이는 종교는 반대했지만, 자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교회와 신앙은 일치되지 않지만 교회가 신앙을 이용해먹는 일이 많죠. 1901년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문당하는, 그래서 소설들 말고 많은 저작들을 남기는데, 애국주의와 정부, 여러 가지 아나키즘에 관련된 것이 많은데, 신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다.

자기의 급진적 기독교 아나키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죠. 간디가 이것을 읽고 큰 영향을 받았죠, 간디가 남아프리카에 있었는데 유명한 변호사로, 지도자로, 사회운동을 하는데, 간디에게 영향을 많이 줬던 사람이 톨스토이에요.

### ◆3교시 : 톨스토이 3

#### ▲톨스토이의 ана키스트적 변모 1

톨스토이가 ана키스트라고 얘기했느냐 불렀던 적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톨스토이는 ана키스트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ана키스트로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할 수 있죠. 톨스토이가 진정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삶, ана키스트로서의 삶이 톨스토이에게는 똑같은 것이었고요.

당시 러시아에서는 폭력이 만연했었고, 톨스토이가 이해하기에 폭탄, 권총을 사용하는 사람을 ана키스트로 매도했던 사람이 있죠. 그래 나는 ана키스트라고 하는 것에 심리적 저항을 느낀거죠. 비폭력에 기반한 사랑이 중요한데, 상호부조라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제국주의의 길을 걷던 자본주의 국가들, 식민지화 위협에 놓여있던 제3세계 국가들의 구분을, 톨스토이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한다는 관념을 넘어서려고 했던 거죠. ана키즘이 말했던 사상들이 톨스토이가 말했던 것과 일치했구요.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톨스토이의 경우 농민공동체를 만들고, 비폭력적인 삶을 개인들이 살게 된다면 지금 이 세상이 정답이었고, 자기가 태어나서 귀족으로 살았지만, 아스나야폴 나냐,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며 살았죠.

그런 지점이 ана키스트로 살았다고 볼 수 있었고 그런 지점이 톨스토이에게는 ана키스트로서 자신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었고, 폭력은 반대하지만 ана키즘은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ана키스트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독일의 사상가가 ана키즘에 관련된 분류된, 조류들이 있고, 톨스토이처럼 비폭력에 기반한 ана키즘도 있다. 그리고 당대 ана키즘의 조류라고 톨스토이에게 설명했는데, 동의한다고 했구요.

‘아나키스트에 관하여’라는 팜플렛을 썼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정부와 사유재산이 톨스토이에게 있어, 폭력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고, 자본주의 제도, 기업과 정신이 사회를 얼마나 타락시키는가를 톨스토이는 설명했다. ‘바보이반’에서도 나와 있죠.

#### ▲톨스토이의 ана키스트적 변모 2

톨스토이의 ана키즘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ана키즘이라고 본다면 도덕이나 윤리의 측면이 어떻게 ана키즘과 양립할 수 있는가, 도덕의 경우, 저는 윤리가 제일 싫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왜 관섭하는가. 도덕이 개인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데.

엄청난 영적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죠. 톨스토이의 경우 개종을 하게 된 이후에는



결혼도 해서는 안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죠. 간디도 마찬가지고요. 도덕적 길을 추구하다 보면 짐을 짊어지고 살 수 밖에 없죠. ана키스트와 어떤 연관이 되느냐, 개인의 해방,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과 도덕적인 삶이 어떻게 등치되는가.

톨스토이에서는 가능한 건데, 그의 부인은 비웃었는데, 나이 차이도 20살이 나는데, 둘 사이에 자식은 13명을 낳았고, 평생에 걸쳐서 고뇌에 찬 삶을 겪게 되고 나중에 의문들이 풀리면서 명백해 진거죠. 어떻게 살아야할 것인가에 대해 모든게 명백해 진거죠. 어떻게 살아야할 것인가에 대해 갈등할 필요가 없구나하며 답을 내놓죠. 금욕적이고 도덕적이고, 평화적, 채식주의 등이 있고요,

톨스토이주의는 이러한 것에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한거죠. 하루에 수십통씩 편지도 했다고 해요. 부인의 경우는 무슨 자식을 13명을 낳은 사람이 금욕을 하나 비웃었다고 하죠. ‘전쟁과 평화’로 많은 돈을 벌게 되니 인세나 판권을 포기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진게 아니라 인류의 공동재산이다, 완벽한 ана키즘에 기반한 자신의 도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본주의자들이 주장한 개념이라고 얘기하죠. 작품에 대한 판권을 다 버려요. 그러기가 쉽지 않죠. 부인의 경우 말도 안된다. 야스나야폴라냐의 삶을 알고 있느냐. 끼니마다 밥 가져다주고, 뒤처리 수많은 하인들, 드는 돈이 얼마만지 아냐. 판권은 톨스토리가 죽었을 때 자기가 행사하겠다고 싸움을 하다가 얼마간 얻어서 부유하게 살죠. 톨스토이는 그런 갈등 때문에 영지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죽게 되죠.

#### ▲톨스토이 사상 1

도덕이 왜 필요한가. 자기가 생각한 ана키즘은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살면 법이 필요없다고 생각한거죠. 세금이나 법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봤는데, 동시대 사회사상가들이 나름대로 대답을 내놓았다고요. 맑스등, 누구든 답을 했죠. 완전히 ана키스트가 되기 이전, 프랑스로 가서 최고의 ана키스트 사상가였던, 프루동을 만나 얘기해요.

톨스토이는 ана키스트가 되기 전인데, 교육사상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프루동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프루동도 ана키스트이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톨스토이는 그와의 만남이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프루동을 만나고 그런 학교를 세우죠. 농민들이 배우는 곳, 진보적이 곳이죠.

윤리, ана키즘과 도덕이 톨스토이 사상 내에서 하나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톨스토이가 개인주의에 기반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국가가 필요 없도록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톨스토이는 도덕이라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엄청난 짐을 지고가는 삶인데, 그것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들, 톨스토이가 성경에서 찾아낸 말들이 있는데, 기독교 ана키즘이나, 톨스토이의 예수가 했던 가르침을 ана키즘적 요소들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톨스토이도 성경안에서 발견했고, 중요했던 거죠.

톨스토의 경우 십계명을 지키고 산다면 현실의 법이나 제국주의나 단두대,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측면이죠. 윤리를 강조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거죠. 그리스도개혁가, 도덕주의자로서의 삶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있어왔는데, 아나키즘에 입각한 톨스토이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비폭력이라는 지점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 톨스토이가 말했던 구조적 폭력의 측면을 없애려고 하면서 농민들과 농사지으며 사는 소박한 삶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고요.

#### ◆4교시 : 톨스토이 4

##### ▲톨스토이 사상 2

헨리조지가 주장한 내용을 읽고, 잊고 있다가, 다시 찾아보니 톨스토이도 헨리조지와 대화나누고 일정정도의 공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나키즘 전체로 보자면 공통점보다는 다른 측면들이 많겠지만 톨스토이경우는 일치되는 경우가 있죠.

아나키즘의 입장에서는 헨리조지가 다른 위치에 있는 듯 해요. 세금 걷는 정부 존재 자체도 거부하는데, 헨리조지의 사상이 나오게 된 것을 톨스토이가 이해한 듯 해요. 평가를 내리는 사람마다 다른데, 60살이 넘었을 때 새로운 비서에게 권위적이지 않는 모습 등에서 귀족으로 태어나 그런 삶을 살았지만,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이 톨스토이에게는 중요한 물음이었죠.

신과 가까이 갈 수 있는가의 물음이 톨스토이를 지배했던 물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대답으로 톨스토이가 내놓은 것이 그런 거죠. 도덕적인 측면이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지만 톨스토이 입장에서는 급진적 사회개혁사상이었죠.

비슷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원래 톨스토이가 유명한 소설들을 쓰지 않고 이런 사상을 펼쳤다면 바로 국외추방을 당했을 겁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사상검열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 중 하나는 톨스토이였죠. 소식지를 발행하다가 러시아 비밀경찰에 걸리면 바로 감옥에 가거나 했죠.

톨스토이도 근처 농민이 현 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러시아 정부 당국에 발각되서 3년형을 선고받고 살았는데, 톨스토이 입장에서는 유치한데, 톨스토이는 종신형을 받았어야 하는 사람인데, 죽는 날까지 정부로부터 탄압은 받지 않았죠.

귀족의 계급, 크로포트킨도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러시아를 망명할 수 밖에 없었죠. 톨스토이는 살아 생전 추앙을 받았으므로 자기의 사상을 전파할 수 있었죠. 행운이라고 볼 수 있고요.

##### ▲톨스토이 사상 3

톨스토이는 농민처럼 옷을 입고 다녀서 농민인지, 귀족인지 몰랐고, 짜여진 일과표가 있는데, 엄격한 삶을 살았고, 자기 이상을 현실에 실현시키는 방향이었죠. 인간에 대한 애정은 많았죠. 끊임없이 농민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있었고요.

종교적 가르침을 설파한 것이 아닌가,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움직임들이 생겨난거죠. 농민 집단거주지를 만들어 금욕과 채식주의와 농사일에 육체노동을 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신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다는 삶인데, 톨스토이의 경우 자신의 말이 종교처럼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했죠.

주변사람들이 톨스토이를 지도자, 혹은 숭배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만큼 톨스토이를 이해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개인주의에 기반한 비폭력 아나키즘이라는 톨스토이의 가르침, 러시아 대문호이면서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나. 혹은 그런 러시아의 한계를 톨스토이가 넘어서려는 고뇌에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죠.

자기가 소박하게 살면서 실천을 했었던 측면, 다른 지식인들에게 보이지 못한 모습이었죠. 가식을 벗어버리고 귀족이라는 신분조차도 스스로 거부했던 모습들이 다른 사상의 뛰어남도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톨스토이의 경우는 자신이 설파했던 사상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는 것이죠.

사상과 구체적인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 괴리를 느꼈기 때문에 괴로워했고 어느 순간 자신에게 구원으로 다가왔죠. 종교적 의미의 개종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해답을 찾았다고 할 수 있죠.

가족의 입장에서는 톨스토이가 변했다고 말했다고 하고, 아들의 경우도 평생 쌓아온 안락한 삶을 왜 버리려고 하냐고 하죠. 톨스토이는 소박한 삶에 해답이 있다고 한 것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될 듯 해요.